

“1년 할인 금액만 659억원” 배민, 매달 쿠폰 뿌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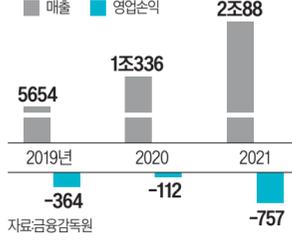
퀵커머스, 쿠폰 살포 경쟁

대학생 김성호 씨(25)는 요즘 편의점에 가지 않는다. 대신 배달 앱을 통해 편의점 상품을 배달받는다. 편의점에서 ‘2+1’ 또는 ‘1+1’ 등 덩어리로 판매하는 상품을 주로 구매하고, 배달 앱이 뿌리는 수천원짜리 할인쿠폰을 사용한다. 김씨는 “퀵커머스 플랫폼마다 거의 매달 편의점 상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퀵커머스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플랫폼별 할인쿠폰 살포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마트’ ‘배민스토어’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쿠폰 할인 금액은 659억원에 달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8~9월 퀵커머스 서비스와 관련해 발행한 할인쿠폰은 ‘앱에서 편의점 상품 2만원 이상 주문 시 8000원 할인’ ‘2만원 이상 배민페이(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 시 7000원 할인’ 등이다.

◆ 적자 감수하면서 쿠폰 마케팅
우아한형제들은 이렇게 쿠폰을 뿌리면서 ‘밀리는 장사’를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75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등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한창이어서 올해도 흑자 전환은

우아한형제들 매출 및 영업손익 (단위: 억원)



배민 “앱으로 편의점 상품 2만원 이상 주문엔 8천원 할인”

업계 “제살값이 경쟁이지만 고객 최대한 모아야 생존 가능”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쿠폰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건 퀵커머스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 하나가 ‘많은 이용자 수’이기 때문이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은 확실한 1위가 없는 가운데 참여자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B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배민스토어를 통해 편의점 상품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지

난해 뛰어난 요기요의 ‘요마트’, 쿠팡이츠의 ‘쿠팡이츠마트’도 활발하게 서비스 중이다.

대형마트업계도 최근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쓱고우’를 론칭했다.

이런 시장에서 승기를 굳히려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아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원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배달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얘기다. ◆ “배달시간 늦춰야”

퀵커머스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고객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배달 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퀵커머스라고 하면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4~5시간으로 늦추는 대신 한 번에 많은 상품을 배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론차로 1시간에 한 건만 배달하는 것보다 5시간 안에 사룬 차로 30건 정도를 배달하는 것이 인건비 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홈플러스가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홈플러스의 ‘오늘 밤 마트직송’은 오후 7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밤 12시 이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미경 기자

“한국인 입맛 잡으면 글로벌 시장서도 통하죠”

글로벌 ‘젤리 1위’ 獨 하리보 “韓 진출 8년 만에 자회사 설립”

‘어린이 간식’ 정도로 여겨지던 젤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겉은 지고 젤리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글로벌 젤리 시장은 독일의 하리보가 이끌고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독일의 가족기업 하리보는 2014년 한국에 진출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젤리 부문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 회사가 한국인 입맛이 궁급하다며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코스타스 블라초스 하리보 해외사업 총괄책임자(사진)는 14일 한국경제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한국 시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시장 총괄부서에서 담당해왔다”며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지사를 세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팝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중심지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힌트를 찾겠다는 게 하리보의 구상이다. 블라초스 총괄책임자는 “한국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새로운 제품에 저항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고 했다.

블라초스 총괄책임자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젤리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

로 내다봤다. 그는 “젤리는 향을 맡고, 만져보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 경험을 제공한다”며 “겉 소비가 줄고 젤리가 떠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전 연령층에 브랜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리보의 큰 차별점”이라고도 했다. 하리보에 따르면 서유럽, 미국, 일본 등 고령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장에서 젤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리보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하리보 골드베렌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열고 있다. 하리보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비롯해 하리보 젤리의 제작 과정 등이 전시된다. 한경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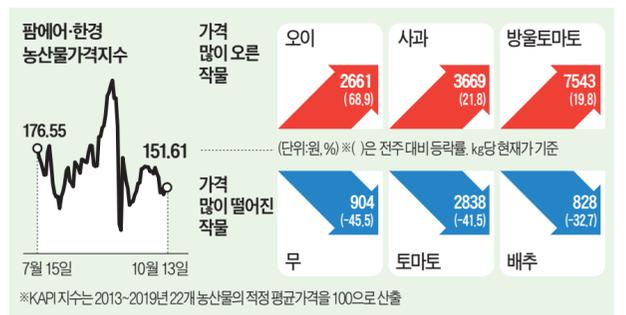
배추·무 가격 안정세 ... 오이만 ‘나홀로 급등’

팜에어·환경농산물 가격지수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와중에 오이 가격이 나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여름 내린 잦은 비가 생육 부진 요인으로 작용해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14일 팜에어·환경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예측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오이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661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68.9% 급등했다. 전월 평균 가격과 비교해선 25.3% 올랐다.

지난 7~8월 내린 잦은 비와 밤 시간대 기온 하강으로 주요 출하지인 충청, 강원 지역에서의 생육이 부진한 게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날씨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작과 불량도 이어졌다.



농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재배 면적이 줄고, 오이 대신 당근과 콩, 감자,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도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이 가격은 당분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란은 다음달 오이 평균 도매가격을 kg당 2400원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에는 2741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까지 폭등세를 이어가던 배추, 무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박종관 기자

‘정용진 부캐’ 제이릴라, 골프웨어 속으로 들어온다

신세계, 캐릭터 사업 본격화 코오롱 의류에 디자인 활용

신세계가 정용진 부회장의 님은꼬리 유명한 ‘제이릴라’ 캐릭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공식 활동 1년 만에 5만 명의 SNS 팔로어를 확보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는 코오롱FnC의 골프 전문 온라인숍 ‘더카트골프’와 협업해 제이릴라 골프웨어(사진)를 선보인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으로 제이릴라 캐릭터가 디자인에 활용된 패딩조끼, 셔츠, 팬츠, 스커트, 모자, 양말 등 20여 종이 출시됐다. 신세계푸드 관계



등장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화성에서 나고 자란 고릴라 제이릴라가 패션, 음악,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지극한 친구들을 만나 활동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게 신세계 측은 설명이다.

캐릭터를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는 빵을 좋아하는 제이릴라의 세계관을 접목한 베이커리 매장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를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에 열었다. 제이릴라는 럭셔리 브랜드 구찌와 코치로부터 운동화와 의상을 협찬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세계푸드는 제이릴라의 인지도를 쌓는 수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캐릭터 사업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IP 사업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정 기자

뉴로클, 일반인도 쉽게 쓰는 AI 답러닝 SW

▶ 으뜸중기

소프트웨어(SW)업체 뉴로클은 일반인이 인공지능(AI) 답러닝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누구나 쓸 수 있는 답러닝 SW ‘뉴로타’와 ‘뉴로알’을 개발했다. 뉴로클은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고 산업 범용성까지 갖춘 제

품을 개발해 차별화를 꾀했다. 뉴로타와 뉴로알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외관 불량 검사 △의료 이미징 분석 △물류 검사 등 답러닝 비전 프로젝트에 이용되고 있다. 별도의 코딩 없이 누구라도 뉴로클의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고성능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영상과 이미지를 판독하는 것이 장점이다.

뉴로클은 SK, LG,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려대병원 등 의료기관 등으로 거래처를 확장하고 있다. 아시아 및 유럽 10개국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홍성 뉴로클 대표(사진)는 “더 많은 해외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공모전·대외활동 정보는
www.all-con.co.kr

공모전·대외활동 광고 문의
02-360-4520
allcon@all-con.co.kr

올콘

공모전·대외활동 정보
올콘에 다~있다!

1
스펙을 쌓고 싶은
대학생

2
입시에 도움되는
청소년 활동

3
경력을 위한
일반인 공모전

올콘 바로가기